



QR코드를 통해
요셉의원과 만나세요

요셉의원



요셉의원 | 필리핀요셉의원 |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지

2022년 8월 제 **123**-1호

<http://www.josephclinic.org> | 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

발행인 **홍근표** 편집 **요셉의원** 편집부 발행처 **요셉나눔재단법인**

(우) 073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00길 6 전화 : (02)2634-1760 FAX : (02)2677-5839 E-mail : info@josephclinic.org

본원, 개원 35년 만에 ‘요셉나눔재단법인’으로 새 출발 ‘요셉의원’ 동일하게 운영... 선우 선생 설립이념 체계적 실천 계기 마련



요셉의원이 개원 35년 만에 ‘요셉나눔재단법인’으로 새 출발하게 됨으로써 선우 경식 선생의 설립 이념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가운데 사진은 첫 이사회 장면, 왼쪽 사진은 위에서부터 개원 미사 장면, 신림동 요셉의원 환자 대기실 모습, 영등포 요셉의원 앞에서 포즈를 취한 직원과 봉사자들, 사진 오른쪽은 위에서부터 쪽방촌 방문, 목요나눔, 치과 진료 장면.

본원은 7월 4일 ‘요셉나눔재단법인’(이사장 유경춘 주교, 이하 ‘재단’)으로 약칭)의 법적 등기를 완료하고, 새로운 공익법인으로 첫 걸음을 내디뎠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치료하고 돕기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문을 연 지 35년 만에, 좀 더 체계화된 모습으로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게 된 것.

재단은 지난 7월 26일 본원 4층 도서관에서 첫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홍근표 담당 신부를 상임이사로 선임했다. 또 홍 상임이사로 직무상 초대 사무총장으로 임명해 재단 실무를 총괄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재단 이사 중 한 사람인 신완식 요셉의원 의무위원장을 재단 산하 요셉의원 병원장으로 임명했다. 병원장은 재단 출범 이후에도 전과 동일하게 운영되

123-1호
주요
소식



요셉나눔재단법인 새출발

1



요셉의원 소식

6



후원의 손길

8



필리핀요셉의원 소식

10



국성회 소식

13





본원 신완식 병원장이 해외의료봉사 중 어린이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 법인 출범과 함께 가난한 나라의 의료빈민에 대한 지원도 좀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는 요셉의원의 모든 운영을 맡게 된다.

기존의 요셉의원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의사 결정을 했으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이사회가 주요 의결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시설이었던 본원은 사업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연간 자산 운용 규모도 증가하면서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 법인 설립이 요구돼 왔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실무 TF팀에서는 정관 마련과 이사회 구성 등 법인 설립 허가를 얻기 위한 각종 준비 절차를 진행해 왔다.

홍근표 재단 사무총장 신부는 “선우 경식 선생의 설립 이념 아래 아직도 그늘에 가려져 도움이 절실한 빈민층을 찾아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5년간 가난하고 소외된 환자 72만여 명 진료

올해로 개원 35주년을 맞는 본원은 지난 1987년 고 선우 경식(요셉, 1945~2008) 선생이 초대 원장을 맡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문을 연 뒤 1997년 영등포 현 위치로 이전했다.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숙인과 행려 환자 등 사회에서 소외된 빈민층을 위한 무료 자선 진료소로 자리매김한 이래, 지금까지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등 72만여 명을 진료했다.

최근 2년여 동안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본원도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크게 완화됐으나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며 본원도 아직 예전의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모두 가동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목

구분	진료 환자		봉사자		후원자	
항목	개원 이후 누적 환자	723,351	의사	109	후원회원 등록자	17,775
			치과의사	22		
			임상병리팀	5		
	월평균 (2022년 1월~7월)	867 (※코로나 여파에서 회복중)	영상의학팀	8	연간 실제 납부 후원자 (2021.08~2022.07)	6,424
			약국팀	12		
			간호팀	9		
			의무기록팀	5		
			물리치료	3		
			일반봉사자	월평균 47		

■ 진료환자·봉사자·후원자 현황(2022년 7월 말 현재, 단위: 명)

욕 서비스와 법률상담, 쪽방 방문은 7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도서 대출 서비스도 빠른 시간 안에 재개할 예정이다.

특히 예전에 식사를 제공했던 목욕 나눔을 대신해 8월부터는 쪽방촌에서 잘 나오지 못하는 노약자 등 50여 명의 주민들을 위해 도시락 나눔을 시작했다. 이 도시락 나눔은 본원의 직원과 봉사자들이 일일이 가가호호를 방문해 안부를 묻고 가져간 음식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분원 설치 고민 중”

재단 출범과 함께 본원에서는 노숙인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의 다른 지역에 분원을 마련해 간단한 의료와 생활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 있다.

재단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는 “영등포는 서울 중심지에서 서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데다, 요즘에는 노숙인들이 탈시설화 경향을 보여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같은 분원 설치 구상은 현재 본원이 위치한 영등포 지역의 재개발과도 무관치 않다. 이곳은 수 년 안에 재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쪽방촌 세입자들이 신축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지금처럼 샤워 시설도 없이 멀리 떨어진 화장실을 공동으로 써야 하는 등의 불편은 해소되게 된다. 그러나 이곳 약 360여 가구 쪽방촌 주민 가운데 일부는 아파트 입주를 하지 않고 서울의 다른 쪽방촌 지역으로 옮겨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 정유섭 씨는 “재개발 주체 측에서 쪽방촌 세입자들에게 이곳 임대아파트 입주권과 함께 개발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보상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단 이곳을 떠나 거주 여건이 비슷한 다른 쪽방촌이나 고시원 쪽으로 이사 가면 일부는 돌아오지 않고 아예 그곳에 머무는 이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우 선생의 설립이념 체계적으로 실천 예정

해외 의료지원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가난한 나라의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빈민층을 위해 약품 등 의료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요셉의원은 고 최영식(마티아) 신부가 가톨릭의료원장을 역임한 경험을 살려 직접 현지로 가서 도시빈민들의 어려운 삶을 보고 클리닉 설립을 결심했고, 요셉의원은 클리닉 운영을 자문하고 의약품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따라서 가난한 외국의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나 수도자들의 의료 지원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6.25 전쟁 뒤 많은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듯,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 물품을 3년 정도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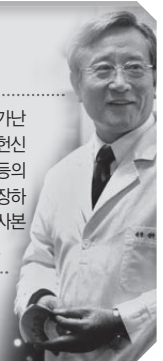
해외 의료봉사도 가난한 나라의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을 돕기 위한 주요 활동 중 하나다. 오랫동안 해외 의료봉사팀을 이끌어온 본원 신완식 원장은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등의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가 보면 자그마한 도움의 손길로도 평생의 장애를 면하게 해줄 수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법인 출범과 함께 가난한 나라

♥ 알려드립니다

‘선우경식 선생의 유품을 찾습니다’

본원 설립자인 선우 경식 선생 기념사업 준비팀에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선우 선생의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의 발자취를 되새기기 위해, 생전에 남기신 유품과 편지 등의 각종 기록물, 사진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소장하고 계신 선우 선생 관련 기록물이나 유품들의 원본 혹은 사본을 기증해 주시면 기념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 락 처 : 02-2634-1760(내선 258, 251)
보내주실 곳 : (07306)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0길 6
요셉의원 ‘선우 선생 자료수집 TFT’



의 환자를 찾아가는 의료봉사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해외 의료 지원을 강화한다고 해서 국내 무료 진료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신 원장은 “본원은 서울시의 ‘안전망 병원 시스템’에 속해 있는 3개 병원 중 하나로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상급 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도록 하고, 요셉의원 자체적으로 주변의 5개 종합병원과 진료 협약을 맺어 환자들의 고액 수술비 등을 본원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원은 이번 재단 출범을 계기로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환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의 자립을 위하여 최선의 도움을 준다’는 설립 이념을 더욱 체계화하고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와 함께 선우 선생의 뜻을 기리는 많은 분들과 더불어 ‘선우 경식 선생 기념사업’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지난해 7월 30일 염수정 추기경이 서울대교구장 재임 시 열린 요셉나눔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에서 행한 격려사 전문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하느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나눔재단 창립총회를 맞이하여 요셉의원이 하는 모든 일이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굳게 믿으며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1987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선우 경식 선생님이 무료 진료를 베풀어 어려운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한 이래 34년이 흘러갔습니다. 2008년 선우 선생님이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시고, 그 뒤를 이



어 신완식 의무원장님이 거룩한 사업을 계속 이어오셨으니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아울러 요셉의원 조해봉 원장신부님과 전임 이문주 신부님을 비롯해 수많은 후원자와 봉사자들이 마음을 모아 사랑을 실천해 오신 것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요셉의원이 신림동에서 영등포역 근처 현재의 건물로 이전했을 때, 저는 영등포동 본당 주임신부로 재임하고 있었

습니다. 그때 요셉의원을 찾아가서 함께 성탄 미사를 봉헌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로부터 34년의 역사를 거쳐 꾸준히 성장하면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소속에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의 교황님께서는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름을 선택하시어 교황 재위에 오르셨고, '세계 가난한 이의 주일'을 선포하시면서 당신의 사목 방향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이 축일은 '그리스도와 축일'과도 관련이 있는데, 교황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와 대축일의 전 주를 '세계 가난한 이의 주일'로 정하셨습니다.

이날의 복음을 보면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 40) 또,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마태 25, 35~36)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최후의 심판 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답을 드릴 수 있을지 자문하게 합니다.

교황님께서는 또 지난 7월 25일을 제1회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정하시고 첫 번째 기념미사를 바치셨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에 로마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거의 20여 년 동안 노숙자들을 위한 식당을 운영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던 분이라고 합니다. 교황님께서는 그 식당을 찾은 많은 노숙자가 사실은 '사랑을 받고 싶어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나 물건보다는 사랑이 아쉬운 이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선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몸이 아파도 돌보아 주는 사람이 없어 힘들 때 치료를 해 주는 것, 바로 이런 작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선우경식 선생과 지금의 신완식 의무원장님, 조해봉 원

장신부님과 전임 이문주 원장신부님을 비롯한 수많은 봉사자분과 후원자분들은 지금까지 바로 이런 일을 해오신 것입니다. 요셉의원을 통해서 우리 교구가 이 일을 해온 지 30년을 훌쩍 넘긴 이제, 그 섬김과 나눔의 손길은 국내를 넘어 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 지원과 도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나눔을 통해서 가난한 외국인 근로자를 치료하는 라파엘 클리닉도 시작됐습니다. 라파엘 클리닉은 성북구

삼선교 부근 센터에서 진료를 하고, 이제는 명동 밥집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자선기관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하느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언론 매체를 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는 사람이 생활하기에 열악한 환경인 곳이 참 많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가톨릭의료협회의 해외의료봉사단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의료진들이 자주 봉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현역에서 은퇴한 후 봉사활동에 동참하여 계속해서 의술을 펼치기를 원하시는 은퇴 의료진도 적잖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마음을 모아 외국에서 의

료봉사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도 생각해 본다면 좋겠습니다. 과거 전쟁의 폐허에서 가난과 싸울 때 세계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의원이 앞으로 하느님의 사업에 더욱 투신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익법인인 '요셉나눔 재단법인'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성장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많은 분들의 정성이 함께 맺은 '사랑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금번 재단 이사회의 중책을 맡아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요셉의원의 사업에 하느님의 축복과 치유의 손길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



목요나눔 배식 봉사에 참여했던 예다함 상조 임직원 봉사자들이 환자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모습(사진 위). 아래는 본원 영상 의학실에서 X선 촬영을 준비하는 장면.



쪽방촌 향기

“선배 의사의 ‘명령’으로 시작한 봉사”

요즘 젊은 분들은 이해를 못 할지 모르나, 과거에는 인생 내내 선배들의 명령(물론 이런 명령은 드물지만)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와 요셉의원과의 인연은 10년 전 쯤부터 시작합니다. 제일병원의 조병제 교수님께서 제게 요셉의원과 성가병원에 가서 봉사하라고 ‘명령’하시는 바람에 무조건 따랐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이해를 못 할지 모르나, 과거에는 인생 내내 선배들의 명령(물론 이런 명령은 드물지만)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직장인 강동성심병원에서 일하며 늘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는 아쉬움이 있던 차에, 조 교수님이



최철순

본원 영상의학과 봉사의
한림대의대 명예교수

지방으로 전근 가시는 바람에 그 봉사 자리를 저에게 물려준 것이기도 합니다.

처음 요셉의원에 왔더니, 내부가 좁은 2층짜리 건물이었는 데 영상의학과 영역은 제법 컸습니다. 첫날은 일주일 동안 쌓여있던 일반 필름을 판독했습니다. 과거에 쓰던 타자기로 종이에 타박타박 글자를 쳐 넣었습니다. 요새는 판독을 따로 하는 분의 구술(dictation)을 컴퓨터로 인쇄해 다시 보내면 편집해서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당시에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타자기로 종이에 찍어 인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타자가 생기지 않도록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하고, 한 번에 인쇄가 잘되도록 프린트하는데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요셉의원에 와서는 보통 환자 3~4명에게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하루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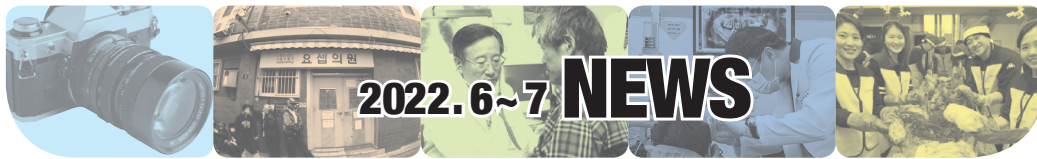
요셉의원에 나온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영상의학과 봉사의 한 분이 빠져나가게 되자 간호팀장님이 저에게 다른 분을 구해달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는 마다 않고 봉사할 의사를 알아보았습니다. 봉사를 원하는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많을 것 같아 쉽

게 구해지겠거니 생각했는데 의외로 한 분을 초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런 일은 10년 동안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제게 부탁이 온 것은 아마도 봉사자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저럭해서 저는 영상의학과 파트의 반장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요셉의원에 전산화 단층 촬영기(CT)가 없어 한 번은 제가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강동성심병원 송진 발렌티노 신부님에게 요셉의원에 CT가 있

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중고 CT를 가톨릭대학병원에서 기부받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리니 적극적으로 알아보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 희소식을 같이 봉사하던 임 모 교수에게 얘기했더니 CT가 있으면 환부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조영 증강을 할 수도 있는데 요셉의원 환자들처럼 일부 알코올의 존중도 있고 만성퇴행성질환이 있으면 부작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타당한 면이 있어 송 신부님께 사정을 얘기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조영 증강을 하지 않은 CT로도 아주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간호팀에서 설치할 장소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아, 그때 밀어붙일 걸 잘못했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초음파를 할 때 매우 빠르게 하기 때문에 자주 소견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셉의원에 와서 천천히 하는 습관이 붙어 기술이 더 좋아졌습니다. 지난해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을 정년 퇴직하고 지금은 경찰병원에서 일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해서 요셉의원 진료에 동참할 생각입니다. +



요셉나눔재단법인, 첫 이사회 개최

요셉나눔재단법인(이사장 유경춘 주교)은 지난 7월 26일 오후 5시, 서울 영등포구 요셉의원 4층 도서관에서 첫 이사회를 열었다. 법인은 지난해 7월 30일 창립총회 이후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 검토가 지연되다 1년여 만에 법적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에 첫 이사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재단법인 이사장인 유경춘 주교를 비롯해 이사 10명과 감사 2명이 모두 참석해 상건례와 함께 임원별 간단한 개인 소개를 한 뒤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 안건으

로는 먼저 홍근표 담당신부를 재단 상임이사 및 사무총장으로, 신완식 요셉의원 원장을 병원장으로, 필리핀요셉의원 김다솔 부원장을 원장으로 선임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어 보고사항으로서 그간의 법인 설립 경과와 재단법인 조직 운영방안, 선우 경식 기념사업에 대한 경과 보고가 있었다.



요셉의원 경당에서 자리를 함께한 이사진. 사진 맨 앞줄 가운데는 이사장 유경춘 주교, 왼쪽은 홍근표 사무총장, 오른쪽은 신완식 병원장.

이사장인 유경춘 주교는 법인 설립 관계자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재단법인 발전을 위해 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재단 원목실장에 황보신이 수녀, 사무국장은 정운식 기획실장이 겸임

요셉나눔재단은 8월 22일자로 신완식 요셉의원 의무원장을 요셉의원 병원장으로,

황보신이 수녀(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를 원목실장으로 보임하고, 정운식 요셉의원 기획실장을 법인사무국장으로 겸임 발령

했다. 신임 황보 실장은 약사 출신으로 다년간 서울성모병원 약제부에서 일한 바 있어 본원의 약제팀 업무도 함께 맡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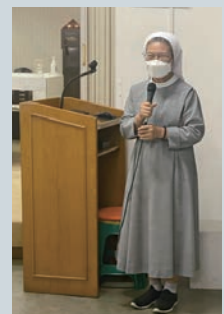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황보신이 원목실장 수녀(사진 위)와 정운식 사무국장(아래).

| 토막인터뷰 Interview | 요셉나눔재단 원목실장 황보신이 수녀

“환자분들의 마음 헤아리며 함께하고 싶습니다”

8월 22일자로 요셉나눔재단 원목실장과 요셉의원 약제팀 업무를 겸임하게 된 황보신이 마리카렌 수녀는 “수도회 입회 전 약사가 되어 처음으로 자원봉사한 곳이 신림동 요셉의원이었다, 30여 년 만에 영등포 요셉의원으로 돌아와 소임을 맡으니 감회가 새롭고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임 황보 실장 수녀는 약학대학을 졸업한 뒤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에 입회해 그동안 본당, 서울성모병원 약제부와 수지성모요양원 등을 오가며 소임을 맡아왔다.

황보 실장 수녀는 “앞으로 수도자로서 그리고 약사로서 우리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으며, 또한 요셉의원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뜻깊은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환자스토리



가난한 환자 위해 포상금 100만 원 쾌척한 이강문 씨

“고된 삶이지만 희망 잃지 않고 어려운 이웃도 도와야지요”



공고 시절 주물기술을 배워 자동차용 강판 개발에 참여하는 등 한때 기술자로 잘 나갔던 이강문 환자(63). 요즘에는 건설 막노동을 하며 고되게 살아가지만,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 ‘의리의 사나이’이기도 하다. 그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최근 본원에 100만 원의 후원금을 선뜻 기부하게 된 사연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얼마 전 고양시의 모 건설회사 아파트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보니, 공사장과 화장실이 먼 탓도 있었지만 일부 공사 인부들이 가구 욕조에 대변을 봐놓은 거예요. 제가 그런 곳들을 찾아서 세척하는 것을 한 고위 간부가 우연히 보고, 나중에 본사로 불러 ‘주민들이 안심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주었다’며 포상금 100만 원을 주더군요.”

이 씨는 “3, 4년 전부터 요셉의원에 다니며 꾸준히 혈압약을 복용했더니 혈압이 잡혀서 늘 고맙게 생각했다”며, “다른 가난한 환자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소하나마 힘을 보탤다”고 전했다.

부산에서 고교 졸업 후 15세 때부터 주물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그는 ‘이해력과 눈썰미가 좋아’ 일찍부터 일반 무쇠 주물을 비롯해 양은, 신주 등 다양한 재질을 다룰 줄 알게 됐다고 한다. 이어 한 선배 기술자로부터 주물 모형

을 포함한 제품 도면을 읽는 방법도 배웠다. 그리고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연탄보일러를 개발해 이른 나이에 돈도 좀 만졌다.

“돈보다는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해 친척의 소개로 현대중공업에 들어갔다가 포철 기술개발실로 옮겨 강판 개발 연구를 돕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일본의 제강 기술을 따라잡는 것이 지상 목표였는데, 일본 현지 제강회사에 찾아가 직접 배워보려고 했으나 접근을 못하게 해, 나중에 일본제 철강을 분해한 시료의 배합을 연구해 성공했지요.”

다른 노숙인들에게 작업복 사주고 건설 노동일 가르치기도

이후 고위층으로부터 주물공장을 차려주겠다는 제의도 받았으나 ‘현장이 좋아’ 풍운아처럼 부산과 경기 광명지역 등의 주물공장을 떠돌며 기술자로 일했다. 한 때 현대건설에 납품하는 엘리베이터 부품 제작을 맡아 직원 20여 명을 둔 공장도 차렸다. 그러나 하청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빚만 지고 말았다. 그 바람에 주물을 포기하고 잠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새로운 일을 하기도 했다. 이후 다시 주물공장으로 돌아갔다 그만 쇠물이 튀는 바람에 오른쪽 눈까지 거의 실명하는 상태가 됐다.

‘엿친데 덮친 격으로’ 낭비벽이 심한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모든 재산을 딸 키우는 데 쓰라고 다 주어버렸다’는 그는 돈에 대한 애착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기거할 때도 노숙인 다섯 명에게 자기 돈을 들여 작업복과 안전화까지 사주며 건설 노동 일을 가르쳤다는 것.

“나이가 들면서 힘이 부쳐 이젠 청소 등의 일을 주로 하지만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급을 받으면서도 일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2년 뒤에 오피스텔 하나는 얻을 수 있어서 제가 좋다고 하는 여성과 정식으로 결혼식도 올리고 남을 도우면서堂堂하게 살아갈 계획입니다.” +

후원의 손길



해마다 500만 원씩 후원한 이계창 원로신부

“선우 원장님은 교회가 할 일을 대신하셨지요”



지난 2007년부터
해마다 적지 않은
후원금을 본원에
기부해온 대전교구
이계창 원로신부
(86)는 “교회가 할
일을 선우 경식 원

장이 앞장서서 하시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아서 지금까
지 작으나마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7년은 이 원로신부가 사제수품 40주년을 맞는 해였다.
“나름대로 뜻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 요셉의원에
500만 원을 송금했어요. 그랬더니 선우 원장님이 전화를
해서 ‘신부님은 서울교구 신부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
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하고 물어서 사제 수품 40주년을
기념해 조금 보내드렸다”고 대답했더니 ‘거듭 감사드립니다’
고 인사를 전하시더군요.”

당시 암 투병을 하고 있던 선우 원장에게 ‘건강은 어떠시
냐?’고 묻자 ‘암 수술을 받고 성모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선우 원장 생존 시에
했던 유일한 전화 통화였다. 이 원로신부는 “후원을 시작
한 뒤 이듬해 4월 선우 원장이 투병 중에 돌아가셨다는 애
기를 듣고 안타까운 생각에 직접 명동성당 장례미사에 참
석해 고인을 애도했다”고 밝혔다.

은퇴한 원로 사제가 연간 500만원 씩 후원하다는 것은 결

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연유를 묻자 “특별히 돈이 많은 건
아니고, 인연이 있어 후원을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 쓸 곳도 많지 않고, 가능한 한 절약해서 필요한 곳에
보내는 정도”라고 밝혔다.

이 원로신부는 본원 말고도 한센병 환자를 돕는 릴리회에
1971년부터 지금까지 후원금을 보내고 있고, 가톨릭평화
방송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사랑이
피어나는 곳에’ 주인공들에게도 수시로 기부금을 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에는 저서 ‘신부님 우리 신부님’ 출
판기념회에서 신학생 양성 교육과 불우이웃돕기에 써달라
고 2억 원을 쾌척했다. 또 197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신
학생 장학기금 1억 5천여 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이 원로신부는 지난 1974년 발족한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나눔을 통해 사회정의를 구현하려
하셨느냐’고 묻자 “동기 신부들이 사제단에 많이 가입해 동
참하게 됐다”며, “남 앞에서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만큼 우
리 스스로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
다”고 전했다. 그러나 1980년 이후에는 여러 일들이 바빠
서 거의 참여하지 못했다. 이 원로신부는 사제수품 기념식
에서 “1987년 대전 대사동성당에서 시작된 ‘사랑의 나눔회’
를 통해 나눔 정의를 실천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어려운 이웃을 후원하는 일에 대해 ‘그냥 저 스스로 기쁘
게 하는 일’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그는 “큰
일을 하신 선우 원장을 생각하며 요셉의원에도 오랫동안
후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 사진출처 : <https://esplanade12.tistory.com/11804412> +



요셉의원 | 후원 및 기증현황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2022년 6~7월)



- Jin Lee ● 강준규 ● 고천숙 ● 고희정 ● 곽현호 ● 권선희 ● 권오찬 ● 권주오 ● 김건우 ● 김경란 ● 김경빈 ● 김경옥 ● 김기홍 ● 김나경
- 김다인 ● 김동은 ● 김로사 ● 김 문 ● 김미겸 ● 김미란 ● 김병욱 ● 김병화 ● 김성민 ● 김성숙 ● 김성애 ● 김세정 ● 김소연 ● 김송여
- 김시혁 ● 김은정 ● 김일남 ● 김정순 ● 김정훈 ● 김주현 ● 김지원 ● 김지훈 ● 김필순 ● 김하경 ● 김하정 ● 김해원 ● 김혜원 ● 김화윤
- 김효선 ● 나예니 ● 남계명 ● 남사인 ● 남석훈 ● 노재광 ● 류경식 ● 류효정 ● 문관진 ● 문지영 ● 박건영 ● 박민호 ● 박선양 ● 박소라
- 박수정 ● 박수현 ● 박옥희 ● 박정현 ● 박주연 ● 박현숙 ● 박혜숙 ● 박효실 ● 배가인 ● 배서영 ● 백미애 ● 백승은 ● 변성혁 ● 서동우
- 서소녀 ● 서원두 ● 서지원 ● 서희영 ● 손기한 ● 손은규 ● 손주미 ● 손창현 ● 신미선 ● 안섯별 ● 안승덕 ● 안아라 ● 안장호 ● 양민석



● 양아련 ● 양준영 ● 엄예지 ● 엄정순 ● 엄혜빈 ● 에이스테크 ● 이상의
 ● 오경숙 ● 오경숙 ● 오경은 ● 오수진 ● 오승재 ● 오인희 ● 오지현 ● 우동성
 ● 유승이 ● 유정은 ● 유주희 ● 유지미 ● 유지혜 ● 유진숙 ● 유희선 ● 윤경희
 ● 윤도연 ● 윤영지 ● 윤정원 ● 윤형기 ● 이동훈 ● 이라미 ● 이명희 ● 이봉석
 ● 이성미 ● 이성준 ● 이수정 ● 이시영 ● 이시온 ● 이영석 ● 이윤영 ● 이윤지
 ● 이재호 ● 이종혁 ● 이준호 ● 이지수 ● 이지완 ● 이진우 ● 이혜명 ● 이희장
 ● 이희정 ● 임다은 ● 임재원 ● 장서희 ● 전성범 ● 전지영 ● 전진우 ● 전현배
 ● 전현우 ● 정덕수 ● 정명자 ● 정상은 ● 정송이 ● 정영란 ● 정영선 ● 정의연
 ● 정태영 ● 정해숙 ● 정효진 ● 정희종 ● 조가비 ● 조길림 ● 조나영 ● 조명현
 ● 조문경 ● 조성범 ● 조지은 ● 조태범 ● 조혜숙 ● 조혜연 ● 차소망 ● 채민수
 ● 천명남 ● 최미란 ● 최민수 ● 최선령 ● 최아영 ● 최어진 ● 최우준 ● 최재희
 ● 최지원 ● 하금순 ● 하정미 ● 함민영 ● 허승진 ● 호다경 ● 홍기욱 ● 홍미향
 ● 홍성예

+ 후원금을 처음 보내신 단체(2022년 6~7월)



● 기양동성당 ● 빈첸시오회 ● 강창구잡쌀진순대 ● 또또에스테틱004 ● 새한양
 로타리클럽 ● 시그니처 ● 정진석추기경선교후원 ● (주)에이치앤코
 퍼레이션 ● (주)태영에이엠씨 대부

+ 주부식을 보내주신 분(2022년 6~7월)



● 김*익(파주시) : 쌀 20kg ● 김귀남 : 커피믹스(100개) 1상자 ● 김유순 : 감자
 2상자 ● 김은숙 : 철원오대쌀 10kg, 오대현미쌀 4kg ● 김현진 : 떡 1상자
 ● 꿀벌유치원 : 쌀 30kg ● 박선희 : 쌀 240kg ● 유*정(서귀포시) : 블루베리
 1상자 ● 익명 : 쌀 60kg, 검은콩두유 12상자 ● 자연드림 : 생수 24상자, 소금 3kg
 ● 토마스의집 : 떡 4상자 ● 피스오브헤븐 : 유기농 롤케익 165개 ● 한진희 : 양파
 50포대, 감자 10상자

+ 의류·신발을 보내주신 분(2022년 6~7월)



● 김*익(파주시) : 옷 8점 ● 주경수 : 의류 및 잡화 1상자 ● 서*훈(파주시)
 : 의류 1상자 ● 유승록 신부 : 수건 200장 ● 선*준(화성시) : 의류 2상자
 ● 정정희(용인시) : 이불 2상자 ● 정*교(여수시) : 의류 1상자 ● 석관동성당 :
 의류 7상자 ● 고명자 : 신발 3족 ● 신을주 : 의류(2상자), 신발(2켤레) 2상자 ● 추
 *희(김포시) : 다운점퍼 1점 ● 진승도 : 의류 5상자

+ 의료가·의약품을 보내주신 분(2022년 6~7월)



● 다림바이오텍 : 글루비타 정 외 8종 ● 사랑의집(마리아 루이) : 목발 2짝
 ● 삼일제약 : 가벨린정150 외 3종 ● 제일한방 : 시프겔120 ● 하나제약 : 노마로크
 정 외 33종

+ 집기·소모품을 보내주신 분(2022년 6~7월)



● 김은* (구로구) : 잡화 1상자 ● 바보의나눔 재단 : 마스크 KF94 1만장
 ● 이소연 : 수세미 1상자 ● 하마리아 : 잡화 1상자

직원 및 봉사자 동정

+ 새로 봉사 나오신 분

- 의 사 : 이기숙(안과)
정혜진(내과)
김지영(한외과)
- 간호사 : 김도현
- 치과위생사 : 오채린
- 간호조무사 : 김순화 · 김혜연 · 박은지
- 일반봉사 : 김경민 · 김동원 · 김동원
김동철 · 김민수 · 김상덕
김하린 · 김혜인 · 문은태
박순교 · 박준형 · 서주연
안소현 · 이병준 · 이석빈
장은재 · 조현재 · 최서희
한석진
- 신학생 현장체험 :
정민식 아벨
(광주교구 08.01.~11.30.)
유환서 루도비코
(안동교구 08.05.~12.23.)

+ 우리 병원에서 나눔한 기관

- 구리 외국인센터
- 도로시의 집
- 안산빈센트의원
- 천주 섭리 나눔의 집
- 토마스의 집
- 핸드슨



+ 요셉의원 월별 환자 진료수

2022년 6월	1,009명
2022년 7월	1,201명



개원 이후 총 진료환자 수(2022년 7월 말 현재)

723,351 명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6~7



필리핀 요셉의원 소식



김다솔 신부의

필리핀 현지통신

마닐라 센트럴대(MCU) 의대와 협진 재개 “진료 가능 인원, 하루 세 명에서 20명까지 늘어”



필리핀 요셉의원으로 진료 협진을 나온 마닐라 센트럴대 의대 소아과팀이 진료 전 환자 보호자들에게 여러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있다.

지난 8월 2일부터 필리핀 요셉의원과 마닐라 센트럴 대학교(MCU) 간의 의료 협진이 재개되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하루에 세 명의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으나, 코로나가 진정됨에 따라 마닐라



협진 재개에 따라 마닐라 센트럴 대학교 의대에서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가정의학과와 내과, 외과, 부인과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라 센트럴 대학교의 대면 협진이 재개된 것. 특히 필리핀 요셉의원은 자체적으로 소아과, 내과, 안과 진료만 가능한 상황이었어서 이번 협진 재개는 환자들에게 더욱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마닐라 센트럴 대학교 의대에서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가정의학과와 내과, 외과, 부인과 진료를 진행 중이다. 하루에 진료 가능한 인원도 기존 세 명에서 하루 최대 20명까지 늘어나 이 지역 보건 의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로 인해 가동하지 못했던 요셉의원 내의 의료 기들도 다시 가동을 시작했다. 김다솔 원장신부는 “한국에서 보내주는

소중한 의료기기들이 다시금 환자를 맞이하게 돼 참으로 기쁘다”며, “앞으로 많은 환자들과 가난한 이곳 지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기기를 보내주신 한국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필리핀 요셉의원에서는 앞으로 원활한 진료를 위해 환자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우기 때에 매일 쏟아지는 비를 피할 수 있는 환자 대기소 지붕 건축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현재는 천막으로 해와 비를 피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톨릭 경제인 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바보의 나눔 재단’과 함께 지붕 건축을 논의 중이다.

김 원장신부는 “앞으로 점점 코로나에서 벗어나 진료 환경이 정상

화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병원을 방문하지 못한 환자들이 많이 찾아와 병을 고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필리핀요셉의원 부원장으로 부임했던 김다솔 신부는 서울대교구 사제인사 발령에 따라 8월 19일자로 필리핀요셉의원 제3대 원장에 임명됐다.

의료 정보 시스템 전산화

필리핀 요셉의원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의료 정보를 수기로 작성했으나, 의료정보시스템이 전산화되며 모든 의료정보를 종이 대신 컴퓨터로 저장, 전송 및 분석 등이 가능하게 됐다.

수기 의료기록은 환자들의 이전 진료기록을 한 번에 확인하기 힘들고, 외부 병원에서 가져온 검사기록을 남겨두기가 힘들다는 점(엑스레이나 CT 같은 기록), 습기로 인해 진료카드가 손상되는 문제, 더 이상 방문하지 않는 환자들의 진료카드가 쌓임에 따라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관리가 어려운 점 등이 문제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체계적인 환자 관리와 더욱 세밀한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모든 진료 기록의 전산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지난 7월 중 진료 전산화 프로그램을 구입해 진료용 노트북 등에 설치한 뒤 현재는 시험운동을 끝내고 의사 선생님과 보조 직원들

RCBK JOSEPH CLINIC MISSION CENTER			
CLINIC SCHEDULE			
MONDAY (Dr. Castillo)	8:00 - 12:00	PEDIA	23 PT
	1:00 - 4:00	PEDIA	23 PT
TUESDAY (MCU)	8:00 - 12:00	FAMILY MEDICINE	30 PT
	1:00 - 4:00	OB-GYN	5 PT
WEDNESDAY (MCU)	8:00 - 12:00	FAMILY MEDICINE (PROMA) 20 PT	INTERNAL MEDICINE (ADULT) 20 PT
	1:00 - 4:00	SURGERY	5 PT
THURSDAY (MCU)	8:00 - 12:00	FAMILY MEDICINE (ADULT) 20 PT	PEDIATRICS (PROMA) 20 PT
	1:00 - 4:00	FAMILY MEDICINE (ADULT) 20 PT	OPHTHALMOLOGY 20 PT
FRIDAY (Dr. Luis)	8:00 - 12:00	ADULT	23 PT
	1:00 - 4:00	ADULT	23 PT

필리핀 요셉의원에서 주민들에게 공정한 진료 시간표.



필리핀 요셉의원 간호사(녹색 옷)가 마닐라 센트럴 의대 진료팀에게 의료정보시스템 사용법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의료정보시스템이 전산화됨에 따라 환자들의 대기시간도 줄어들고, 이전의 오래된 병력을 손쉽게 반영한 진료와 처방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이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의료정보 시스템을 전산화하면서 특히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자세한 의무기록을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전의 오래된 병력이 지 고려한 진료와 처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복음 묵상

‘하느님께서서 머무시는 자리’

옛날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 오직 대사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는 말 그대로 가장 거룩한 곳, 성(聖)과 속(俗)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장소’가 중심이었다면,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는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무엇도 아닌 당신 몸을 두고 성전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제는 하느님께서 어느 한 군데 지정된 장소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다는



김다솔

필리핀요셉의원 원장신부

생각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느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뻔하지만 분명한 대답은 ‘우리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답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목상이 필요합니다.

이곳 필리핀에서는 운전이 무척 힘듭니다. 좁은 도로에는 온갖 것들로 넘쳐납니다. 뜬금없이 도로 한가운데 솟아있는 전봇대며 아무 데나 서는 지프니며 차 사이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오토바이, 조그마한 틈이 생기면 튀어나오는 사람들... 이런 도로를 운전할 때마다 혼자서 많은 안 좋은 말과 생각을 하고 맙니다. “저렇게 급하게 가고 싶으면 어제 출발하지...”, “차를 살 때 깜빡이는 깜빡 잊고 안 샀나 보네...” 이 밖에도 혼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과 함께 계시다’

그런데 문득 만약에 ‘이 모습을 누가 보게 된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고 아무도 신부라고는 생각 못할 것 같



은 걱정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생각 안할 듯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과 함께할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머무실 자리를 잔뜩 더럽혀 놓고 하느님이 함께하시기를 바라왔던 것이지요.

필리핀 요셉의원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에 하느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단순히 인간의 비즈니스, 혹은 선한 일의 탈을 쓴 다른 누군가의 일일 것입니다.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연히 우리과 함께하시지만, 우리 입장에서 하느님께서 머무실 자리를 정성스레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삶 안에 마련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필리핀 요셉의원이라는 이 공동체가 하는 일에 하느님을 모시면 바로 그제서야 우리는 사람의 일, 어떤 욕망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필리핀 요셉의원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사업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찰하고 실천해 나갈 다짐을 해 봅니다. +

+ 2022년 6월~7월 신규 후원회원(31명)

- 권규성 ● 권영주 ● 권윤선 ● 김미경 ● 김서준
- 김성애 ● 김이원 ● 김지선 ● 김지영 ● 나종진 ● 배선아
- 송은숙 ● 송정섭 ● 심고은 ● 심희정 ● 어혜원 ● 원은진
- 유재순 ● 이경미 ● 이사벨라 ● 이우진 ● 이정숙 ● 이태순
- 임규현 ● 장유미 ● 정경희 ● 최명화 ● 최어진 ● 최유미
- 현대은 ● Moon Haeri

+ 2022년 6월~7월 신규 후원단체

- 로즈앤북스

+ 2022년 6월~7월 진료 및 급식 통계

- 진료 747명
- 타병원 처방전 제출시 약처방 지원 297명 ● 급식 11,266명

+ 개원 이후 총 진료 및 급식 인원(2022년 7월 현재)

- 진료 87,629명 ● 급식 433,148명

+ 필리핀요셉의원 후원 계좌

☎ 070-4688-3412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홈페이지(<http://philjclinic.org>)를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364301-04-150303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우리은행	1005-201-940450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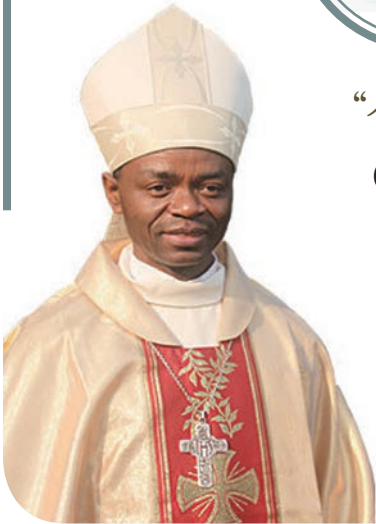
미사 안내

매월 넷째 주 금요일 11:30 요셉의원 내 경당
미사지향 : 고 최영식 마티아 Fr. 및
필리핀요셉의원 후원자들을 위하여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

2022.6~7



지난 6월 29일 국성회에 성경 지원을 요청한 카메룬 바피아 교구장 에마누엘 다시 유팡 주교.

친애하는 국성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룬 바피아 교구장 에마누엘 다시 유팡입니다.

희망을 품고 성경 지원 요청서를 국성회에 보냅니다. 저희 바피아 교구는 심도있는 복음화를 위하여 성경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바피아 교구는 1968년에 개설되었습니다. 우리 바피아 교구에는 34,600km² 면적에 약 50만 명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그중 26만 명이 가톨릭 신자로서 41개 본당과 8개 사목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매년 세례를 받는 사람이 최소 2천 명이고, 올해 우리 교구는 3,500명의 예비자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리교사 950명의 가르침을 받아 세례와 성찬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피아 교구 내 가톨릭 의료기관에서 아기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모습.



저희 교리교사들은 모두 자원봉사자이고 매해 연말에 작은 보수를 받을 뿐입니다. 사실 저희 교구는 재정적 문제가 심각해서 교리교사에게 봉급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큰 교구에서 활동하는 사제가 고작 68명이라 교리교사의 업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구 내 교통이 불편한 지역 공동체에서 영성체를 앞둔 예비 신자들을 가르친다거나, 사제가 부재 중일 때 주일에 그들 공동체와 함께 복음을 읽고 찬양하는 일등은 모두 교리교사들이 애써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교리교사들과 각 가정을 위한 성경 보급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아래와 같이 성경 보급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 활동 중인 교리교사에게 자기 소유의 성경을 갖도록 하기
- ✦ 아직 성경이 없는 가정에 성경 보급하기
- ✦ 하느님 말씀에 친숙해지고 진실로 예수님의 강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견진성사를 준비하는 젊은 리더들에게 성경 보급하기
- ✦ 성경 보급을 통해 평신도가 복음의 지식을 깊이 갖도록 하기

친애하는 국성회 여러분, 국성회가 전 세계에 성경을 보급한다는 것을 알기에 저희는 희망을 가지고, 교리교육 2년 과정을 위한 성경 1,500권 후원을 청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가톨릭 교회에서 쓰이는 공용 성경인 예루살렘 성경 프랑스어판을 요청합니다. 요청에 응해주심에 미리 감사드리며, 국성회의 훌륭한 사업으로 널리 하느님 말씀이 전파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2022년 6월 29일 바피아에서

에마누엘 다시 유팡

☞ 카메룬 바피아 교구장 에마누엘 주교가 위와 같이 성경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오에 따라 국성회에서는 2022년 8월 10일 위 교구에 프랑스어 신구약성경 1,500권(1,560만원)을 후원했습니다. 이번 후원에서는 카메룬에서 사목 중인 김지연 아가다 수녀(도움이신 마리아 수녀회)의 한국 계좌를 경유했습니다.

故 한정관 신부, 국성회에 지정기탁금 기부

아프리카 카메룬과 차드의 성경 지원에 활용

2019년 7월 29일 선종하신 한정관(바오로) 신부가 유가족을 통해 한마음한몸 운동본부에 30억 원을 기증했다. 한 신부는 사목 일선에서 물러난 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내놓겠다고 약속했고, 선종하기 6개월 전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방문해 이 약속을 이행했다.

이 금액 중 1억 원이 국성회 몫으로 기증됐다. 한 신부는 생전에 착한 목자로서, 그리고 목자를 양성하는 스승으로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30억 원을 기증해 '마음 비움을 실천한 고결한 사제'로 칭송받고 있는 고 한정관(바오로) 신부.

온 삶을 불태웠고, 돌아가서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전 재산을 교회의 어려운 곳에 아낌없이 내놓음으로써 '마음 비움을 실천한 고결한 사제'로 칭송받고 있다. 국성회 회장단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갇힐처럼 가볍게 하느님 곁에 가신 한정관 신부님께서 하느님의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오늘도 저희 지상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기쁘게 믿는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

☞ 한정관 신부님의 지정기탁금 1억 원이 2022년 8월 5일 국성회에 입금됐습니다. 이 지정기탁금은 △카메룬 바피아 교구에 프랑스어 성경 1,500권 지원 (15,600,000원 지원 원료) △차드 도바 교구에 은감바이어 성경 5,000권 인쇄 및 컨테이너 운송 지원(8,500만원 이상 지원 추정, 현재 지원 대기중)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양산 성모울타리에서 노트북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성회 여러분. 손수자 데레사 수녀(작은자매관상선교회)입니다.

경남 양산에 자리한 성모울타리는 출소자들을 위한 시설로 전국에서 모여든 출소자들이 약 40명 가량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 아니고 한 평신도가 힘들게 운영하는 곳입니다. 자그마한 빵 공장을 운영하면서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데 생활이 어렵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 이 형제들이 재생의 길로 나아가기란 역부족이기에, 이곳에서는 하느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매주 화~수요일 이틀간 피정을 하고, 매주 목요일에는 철야기도를 올립니다. 이들을 위해 신부님, 수녀님들, 평신도들이 강의와 영성 특강을 해주기도 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십여 년 동안 계속해서 성경공부와 영성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국성

회에서 마련해주신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 노트북으로 동영상도 보여주고 파워포인트로 강의를 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책도 보내주셔서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요. 국성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산 성모울타리에서 입소자들에게 영성 강의를 하고 있는 장면.



그런데 국성회에서 마련해주신 노트북이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아 가능하시다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 장비는 성모올타리 가족들의 성경공부와 영성특강 시청각 교육에 지속적으로 활용돼 이분들이 자활의 길로 나서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돼 거듭 죄송스럽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

2022년 8월 23일 경남 양산 성모올타리에서
손수자 데레사 드림

국성회에서는 현재 장비 확인을 진행하면서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9 월 후 원 회 미 사 알 림



일시 : 2022년 9월 13일 (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요셉의원 3층 경당(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00길 6)

교통 :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6번 출구에서 문래동 쪽 200m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국성회 | 후원 현황 및 후원계좌

+ 후원해 주신 분들 - 일반 (2022년 6월~7월)

●강상훈 ●고현수 ●김금재 ●김만길 ●김명숙 ●김명희 ●김범준 ●김미교 ●김병희 ●김선자 ●김성권 ●김영환 ●김윤 ●김은애
●김진우 ●김준희 ●김현경 ●김현숙 ●나삼균 ●문경호 ●민영진 ●박소향 ●박언빈 ●박은숙 ●박종대 ●송미경 ●송보영 ●신해경
●양영실 ●오세형 ●오영신 ●윤영순 ●윤용식 ●윤창현 ●이강득 ●이경식 ●이미순 ●이상현 ●이신애 ●이엄재 ●이용애 ●이유진
●이은행 ●이일숙 ●이장순 ●이재청 ●이정석 ●이정희 ●이종대 ●이지현 ●이향희 ●이현옥 ●이현창 ●이현규 ●이혜순 ●임한미
●전대영 ●정병옥 ●조용덕 ●조하영 ●조현순 ●진석일업 ●최두혁 ●최명옥 ●최문송 ●최송원 ●최원남 ●최홍규 ●하금태 ●허 근
●허영숙 ●홍성실 ●홍지원 ●황세희

+ 후원해 주신 분들 - 사제 및 단체 (2022년 6월~7월)

●김경식 ●김원호 ●박우준 ●박준병 ●백성호 ●오창선 ●유경춘 ●이계호 ●이문주 ●임상무 ●정순택 ●조인기 ●최광희 ●최명근
●최정훈 ●한정화 ●익명희망자

+ 신규 후원회원 - 사제 및 단체 (2022년 6월~7월)

●박성우 ●홍근표 ●등촌1동성당

2022년 6월~7월 후원금 내역 : 19,179,000 원

+ 국성회 후원 방법

1. 지로용지 신청

국성회 사무실(02-2676-9981)에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지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2. 은행 송금

-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인터넷 뱅킹 송금/모바일 뱅킹 송금/은행창구 송금
- 자동 계좌이체의 경우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고 은행에 가셔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뒤에 국성회 사무실 전화번호(02-2676-9981) 혹은 이메일(overseas-bible@hanmail.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801-003937	(재)천주교서울대교구
국민은행	364301-04-106412	(재)천주교서울대교구

“당신께서는 힘없는 이들에게 피신처가,
곤경에 빠진 가난한 이들에게 피신처가 되어 주시고
폭우에는 피난처, 폭염에는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 이사야 25,4 |

노숙자와 행려자, 알콜의존증 환자, 외국인근로자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병원은 요셉나눔재단법인의 자선 의료기관으로서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과 봉사에 힘입어 35년 간 국내외의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배풀어주시는 사랑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요셉의원 후원 방법

1. 요셉의원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의 '후원 신청' 혹은 '후원 안내' 메뉴의 '후원 신청'을 클릭해 들어간 뒤 왼쪽의 '정기후원(CMS)' 버튼을 누른 다음 후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기존 일반 자동이체 회원 ● CMS 전환 희망자 포함).

2. 요셉의원에 전화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후원관리팀에 전화(070-4688-3416)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원신청을 합니다(녹취를 통한 CMS 자동이체 신청).

3. 은행에 신청하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시거나 신분증과 도장,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신 후에는 전화(070-4688-3416) 또는 donation@josephclinic.org로 입금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기업은행	209-000118-01-010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리은행	172-066521-01-101	서울가톨릭요셉의원
국민은행	364-01-0000-976	서울가톨릭요셉의원
하나은행(구 외환은행)	111-13-04699-8	서울가톨릭요셉의원
하나은행	193-890037-13505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체국	010108-01-011536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소중한 봉사의 경험과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있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모집합니다. 의료인, 환자, 보호자, 일반 봉사자 등 요셉의원과 관련된 따뜻한 봉사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요셉의원 편집부 E-mail : info@josephclinic.org



요셉의원 환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목욕서비스

시간 월~금요일 오후 1~3시 남성
3~5시 여성

장소 1층 목욕실



법률상담

상담 예약 문의 전화 070-4688-3413
(오후 1시~5시 전화 연결 가능)

▼ 아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 중단합니다.



식사나눔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5시
장소 1층 식당



이·미용서비스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1층 현관



단주모임 (A.A 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5시 30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8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영화포럼

시간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1시 30분~4시
장소 4층 도서관



음악치료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4층 도서관



성경공부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 4층 휴게실

도서관 운영

시간 월,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화요일은 4시까지)

미사 안내

요셉의원 3층 경당에서는
월~금요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월요일 : 후원자를 위하여

화요일 : 환자들을 위하여

목요일 :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금요일 : 세상을 떠난 선우경식 원장과
후원자, 환자, 봉사자의 영혼을 위하여

✦ 봉사자와 환우 분들을 환영합니다.